

홈 > 뉴스 > 전시 > Art&Design

## '세번째 눈'에 담긴 인도의 여성성... 국제갤러리 바티 커 개인전

2013년 09월 02일 (월) 14:17:18

이혜원 기자 ✉ culture@unionpress.co.kr

전통 의상을 입은 인도 여성의 미간에는 동그란 점이 찍혀있다. '빈디'라 불리는 이 점은 인도에서 '세 번째 눈'이라는 의미로 최근에는 존경, 사랑, 번영을 뜻하는 패션 장신구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인도계의 바티 커(Bharti Kher, 44)는 빈디를 이용한 조형물로 잘 알려진 여성작가다. 그는 빈디를 의미하는 점을 작품에 부착하는가 하면 빈디를 여러 겹 겹쳐 그림을 그리는 등 인도 고유의 상징을 이용해 여성성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

바티 커의 국내 첫 개인전 <아노말리스(Anomalies)>展이 오는 9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제갤러리 2관과 3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기억의 단상과 문화적 숭배, 사회적 계급, 여성성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 바티 커, A vegetarian lion, a slippery fish(부분이미지), 2013 (제공=국제갤러리)

바티 커의 작품에는 가정과 집, 여성을 상징하는 장치들이 주로 등장한다. 작가는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를 통해 여성성의 부재를 표현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작가는 “가정은 인도 여성들이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다. 그러나 동시에 집은 정신적 연결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성적 과도함으로 채워져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에서 영국으로 이민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바티 커는 1991년 벅시켓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1992년 인도를 여행하던 중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해 현재 뉴델리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바티 커는 런던의 파라솔 유닛 현대미술관(2012)과 우크라이나 키예프 소재의 퍼스트 국제 현대 미술 비엔날레(2012), 파리와 델리, 봄베이의 풍피두센터(2011), 호주 퀸즐랜드 아트갤러리(2010), 도쿄현대미술관(2010), 스위스 쿤스트뮤제움 툰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4년에는 상하이의 록번드 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한다.



▲ 바티 커 © ANAY MANN (제공=국제갤러리)



▲ 바티 커, 무제, 2013 (제공=국제갤러리)